

권오신의 현조(賢祖)실록 신축



글 권오신 (대중회 부회장, 칼럼니스트)

절명의 길을 택한 서산류씨의 정려 기문

瑞山柳氏 旌閭 記文

<임진의병장 오모재五慕齋 권복흥공權復興公의 부인>



곡기를 끊은 아흐레 만에 순절한 조선의 절부(節婦) 서산류씨는 살아서는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그 영혼을 따라 한 무덤에 묻혔다.

1592년 4월 낙동강 하구와 비닷물이 만나는 다대포지역은 왜적이 군수물자를 내륙으로 보내는 교두보로 삼자 매일같이 의병진과 혼전을 벌인 격전지가 됐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창의했던 임진의병장(義兵將) 오모재(五慕齋) 권복흥공(權復興公)은 4월 28일 다대포 전투에서 전사하게 된다.

후인들은 오모재(五慕齋) 공을 두고 창의 한 달이 안 되어서 전사한 임란의병장으로 기록했다.

부군의 비보를 전해들은 날 공의 부인 서산류씨(瑞山柳氏)는 다대포로 달려가서 시신을 수습하려 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서산류씨(瑞山柳氏)는 공이 평소 즐겨 입으셨던 무명직삼으로 초흔, 경주 빈소를 차리고 경주 강동(江東) 단림(丹林) 행장골에 갑좌(甲坐)로 모셨다.



서산류씨는 네 살 난 아들(諱 鸞, 折衝將軍 龍驤衛 副護軍)을 친척에게 맡기던 날 "나는 지어미가 되어서 지어미의 시신도 찾지 못하였으니 궁천(穹天) 하늘 아래에서 도리를 다 못한 죄)의 죄를 지었다."는 말을 절명시(絶命詩)처럼 남기고 음식과 물 한 모금을 넘기지 않은 아흐레 만에 순절하셨다.

임란(壬亂)시에 처음 있었던 애절한 사연이 됐다.

일성록(日省錄: 국보 153호, 영조 36년부터 1910년까지 왕의 동정과 의정부 활동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서적이다. 정조가 세자 때부터 기록했다.)에도 세 번이나 실렸다.

정조(正祖)는 1794년 "열녀의사 권복흥처 서산류씨지문 烈女義士 權復興妻 瑞山柳氏之門" 이란 정려를 내렸다.

지금도 서산류씨 흔적을 간직한 "충신열녀정려비"와 비각이 단계서당(丹溪書堂(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을 지키고 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문헌공(文獻公)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가 지은 기문(記文)에서 죽음의 길을 택한 서산류씨의 열행(烈行)의 길을 <산같이 높고 바다 같이 깊어 별 같이 빛나고 해 같이 밝다.>라는 애절한 기문을 짓고 자신의 저서 이계집(耳溪集)에도 실었다.

"문헌공(文獻公)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의 기문(記文)"

東都有義士 경주에 의협심이 있고 절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曰權復興 성은 권 씨요 휘는 복흥이라 하더라. 少病足 不良于行 젊어서는 발병으로 행보가 불량하였다. 萬曆壬辰之亂 만력으로 임진년(1592)의 난에 奮身提戈 赴戰而死 창의하여 창을 잡고 전쟁터에 나아가 순국하였다. 其妻柳氏 走尋屍莫之得 그의 아내 류씨께서 달려가 시신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고 乃以遺衣招魂而歸 이에 고인의 저고리로 혼을 불러서 돌아와 哭謂家人曰 빈소를 차리고 통곡하면서 가족과 친척에게 말하되 夫死於鋒而失其屍是吾罪也 "남편은 전쟁터에서 순국하고 그 시신조차 잃어 버리니, 이는 모두 나의 죄로다."

何以立天地間 어찌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까! 今將從死 可附於衣履之藏 "장부 따라 이제 죽거든, 남편의 혼령 곁에 함께 묻어주소" 하고 遂閉口絕食 九日而殞 곧 입을 닫고 절식한 지, 아흐레 만에 운명하였다. 方伯上其事 관찰사가 그 일을 나라에 상고하여 並其夫相先後旌其門 그의 남편과 함께 서로 앞뒤로 충신과 열녀문을 정표 하였다. 豐山洪良浩 題其閭曰 풍산 홍양호 정려 명을 지어 가로대 人有大倫 夫婦君臣 사람이 큰 인륜이 있음은 부부와 군신이 아닌가! 臣死於君 是謂成仁 신하가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곧 인을 이루었다고 말하네 壯夫則有 覓者與焉 여기 한 장부가 계시는데 불편한 다리로 잠정하셨다가 순국하셨고 妻死於夫 以身殉天 아내가 남편 따라 한 몸 돌보지 않고 순절하셨네! 生不獲屍 瘞從其魂 살아서 시신 얻지 못했지만, 그 영혼 따라 한 무덤에 모셔졌고 三綱得二 亦有婦人 삼강(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가운데 이강을 얻은 건 또한 열부가 계셨도다.

鷄林之野 東海之濱 경주의 들판과 동해의 물가에 惟忠惟烈 丹楨雙門 오직 충신과 열녀로서 붉은 쌍 문이 빛나는구나! 風雨淒淒 飛鳥哀鳴 바람 불고 비 내려 쓸쓸하니 나는 새도 슬피 울고 山高海深 星輝日晶 산같이 높고 바다 같이 깊으며 별 같이 빛나고 해 같이 밝도다. 邦人拜跪 離人 사람은 굽어앉아 절을 하고 聖主旌之 어진 임금은 충신과 열녀에 정문을 세우도록 명했도다. 百世流芬 太史銘之 향기로운 명예가 몇 천 년이 흘러도 전해지도록 태사(홍양호)가 정려 명을 짓다.

- 崇祿大夫原任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洪良浩謹撰 "송록대부 원임 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 지 경연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지 춘추관 성균관사 홍양호가 짓다. - (국역: 五慕齋공의 12세손 赫文)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1724~1802)"

영조(英祖) 23년(1747) 진사시에 합격, 1752년 문과에 급제해서는 사헌부지평과 홍문관수찬, 교리 등을 역임했다. 정조 1년(1777) 홍국영의 세도정치가 시작될 때 경흥부사로 밀려 났다가 홍국영이 실각되면서 1781년 한성부 우윤으로 돌아 왔다.

사헌부 대사헌과 이조판서를 거쳐 1799년엔 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을 겸임하는 영예를 지녔는가하면 두 차례나 연경(燕京)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석학들과 교류하는 등 문명(文明)을 날렸으며 영조실록 37권의 이계집 등 술한 저술을 남긴 문장가로 명성을 얻었다.

2019년 부호장공파총회 정기총회 개최



부호장공파총회원들이 상을례를 하고 있다.

부호장공파총회(副戶長公派宗會: 회장 권영건)는 1월 25일(음력 12월 20일)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종친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종원(宗員)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0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역대 파총회장을 역임하였던 권인호, 권희택, 권병균, 권오정씨 등 4명의 고문과 권숙동 안동총회장, 권주연 전 안동총친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해마다 정기총회를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종원들의 건강을 고려, 시내와 가깝고 주차장 시설이 넓은 종친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하였다.

권태욱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및 파조위패 당배, 상을례를 하였다. 권영건 파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년 초 대중회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신년하례식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많아서 생각하였으나 보고했다. 또 일일장에서 자라고 있는 은행나무, 참나무, 향나무 등 수령이 오래된 일곱 그루는 중장비를 동원, 모두 베어내고 말끔히 정리하였다"고 작년 12월 일어났던 일들을 알렸다.

이 밖에도 안동권씨가 거족적으로 서명운동을 받고 있던 권율도원수행주대접제의 건의서를 지난 1월 11일 청와대에 접수시켰는데 권율도원수행주대접제가 국가행사로 확정되면 안동권씨로서는 대단한 경사이며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숙동 안동총친회장은 축사에서 "오는 2월 26일 안동시청 대강당에서 안동권씨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는데 이날 죽친들이 많이 참석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한다"고 말하고 "행사날에는 죽친들이 구름처럼 모여 강한 모습을 보여주자"며 모이재! 뭉치자! 하나 되자! 라고 역설했다.

축사가 끝나자 권태욱 사무국장은 경과보고와 결산보고를 하고 권오명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였으며 아울러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타토의에서 권영건 파총회장은 파조 추항제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권중대, 권대수, 권태두, 권기영씨 등 4명을 제례위원으로 위촉하여 권영문 제례위원장의 일들을 도와주시기로 했다. 또 안동시 옥동에 위치하고 있는 '발 매매에 관한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날 종원 20여 명이 160여만 원의 성금을 냈으며 권영건 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양말 두 켤레가 들어있는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회의가 끝나자 안동총친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밥상' 식당에서 화가에예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면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전주완주 종친회 신년하례 및 제53차 정기총회 개최

전주완주 종친회는 2019년 1월 22일 11시 종친회관에서 종친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거행하였다. 이어서 제53차 정기총회에서는 결산보고와 함께 2019년도 예산안 및 운영계획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을 선출하였다. 제24대 회장에는 현 회장인 권오신 회장을 재선출하였고 감사에는 권이수, 권혁재 감사가 선출되었다.



전주완주 종친회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전국 안동권씨 종친들을 위하여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연락처 063-284-4486)

또한 전주완주 종친회에서는 후진양성을 위하여 올해도 전년도처럼 장학생 2명을 선발하여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장학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추

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전주완주 종친회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전국 안동권씨 종친들을 위하여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연락처 063-284-4486)

(권오초 총무)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세무법인 확인

대표세무사: 권혁창 (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업무내용

-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Table with 3 columns: <본사>, <동부지점>, <강원지점>. Includ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oul, Dongbu, and Gangwon branches.